

第 8 回 科學의 날 記念式 盛大

産業勳章 · 科學技術賞 施賞

決議文朗讀으로 7萬과학技術人의 긍지 높여

第 8 回 「科學의 날」 記念式이 지난 4月21日 市內 洪陵에 있는 韓國科學技術研究所 존슨 講堂에서 金鍾泌國務總理, 崔亨燮 科學技術處 長官 國會 金鍾哲經科分科委員長을 비롯한 內外 貴賓과 科學技術界 教育界 產業界 人事 500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盛大히 舉行되었다.

金鍾泌 國務總理는 이날 致辭를 통해 「今年은 光復 30 周年이자 維新 第 3 次年度인 만큼 導入된 科學技術을 眞正 우리 겨레의 것으로 만들고 이의 劃期的인 前進을 期約할 舉國民的인 智慧와 精力을 結集해 나가는 歷史的인 契機를 造成하는데 加 一層 奮發해야한다고 強調하였다.

金 國務총리는 最近 東南亞 事態를 直視하고 警覺心을 높여 自主國防態勢를 確立하고, 重化學工業의 建設과 輸出의 持續的인 伸張, 農漁村의 急速한 發展을 優先 目標로 設定 邁進할 것이며 先進 科學技術의 導入과 消化를 繼續 促進하여 自身의 高度한 技術革新을 期必코 이룩해 줄 것」을 當부했다.

金 國務총리는 「政府는 國力の 無限한 源泉이 되는 科學頭腦의 開發과 技能人力의 擴大를 爲해서 科學技術 教育에 格別한 力點을 두겠다」고 말하고 產業界의 技術開發活動을 支援할 것이며 國內 技術用役을 助長하여 向後 國內에 建設될 工場들은 우리 技術陣이 擔當하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 國務총리는 「重化學工業 建設을 爲한 技術

開發을 爲해서 船舶, 海洋, 機械, 石油化學, 電子工業分野 等 戰略産業 研究機關 設立을 本格化 할 것이며 1981年까지는 大德研究學園都市를 完成할 것」이라고 밝히고 「政府는 全國民의 科學化 運動을 계속 밀고 나감으로써 科學技術人들의 研究와 開發活動을 効率的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金 國務총리는 科學技術人의 勞苦를 致賀하고 國力發展의 礎石이 곧 科學技術人이라는 矜持를 가슴속에 되새겨 달라」고 當부하였다.

이 式典에서는 有功 科學技術人 卞億萬氏(韓國機械工業 技術囑託), 金枝鳳氏(韓國纖維試驗 檢査所 副理事長) 裴基殷(東洋나이론 技術常務)에게 産業勳章 銅塔이 授與되었다.

科學技術人의 最高의 榮譽인 大統領賞(副賞 150萬원)은 科學賞의 成佐慶氏(仁荷大學校總長) 技術賞에 金命年氏(서울市 地下鐵 本部長) 技能工의 優待措置로 新設한 技能賞에는 李德成氏(韓國綜合化學 囑託)에게 各各 授與되었다.

이날 科學技術人의 義望인 施賞式에 이어 金允基(韓國科學技術團體總 聯合會)會長의 7萬 科學技術人을 代表한 科學技術人의 團結과 科學技術 暢達을 다짐하는 4個項의 決議文 朗讀을 끝으로 記念式 幕을 내렸다 記念式이 있는 다음 조출할 다과회장에서는 오랫동안 同志 先後輩가 한자리에 모여 情談을 나누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